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

김경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reload4@korea.ac.kr

차례

1. 들어가며
2. 『近藝雋選』의 편찬 시기와 목적
3. 『近藝雋選』의 체제 및 분류
4. 『近藝雋選』의 형식적 특징
5. 나가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 (NRF-2019S1A5C2A02082732), 2021년 1월 22일에 고려대에서 열린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지면을 통해 발표의 토론을 맡아주신 김기엽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1. 들어가며

科體詩는 賦와 함께 조선시대 進士試 시험 과목 중 하나이다. 조선초기 과체시는 고려 때와 같이 10韻 20句로 古詩와 비슷하여 틀이 일정하지 않았다.¹⁾ 그런 과체시의 형식이 卞季良(1369~1430)에 의해 18韻 36句로 완성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사실은 申光洙(1712~1775)가 남긴 기록에 보인다.²⁾ 하지만 『燃藜室記述』에는 변계량 사후 8년인 1438년에도 10운시로 치러졌고³⁾, 柳得恭(1749~1807)은 端宗 때 古詩로 바뀌었다고 하였다.⁴⁾ 이러한 기록에서 보듯이, 과체시의 형식은 조선초기가 아닌 광해군 무렵에 형식적인 체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체시의 正格은 문헌마다 句의 수가 동일하지 않지만, 『大典會通』 및 여러 실록에 의하면 聯를 1句로 계산한 36隻, 18韻을 말한다.⁵⁾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近藝雋選』는 과체시가 성행하던 18세기에 편찬된 필사본이다. 이 책은 30명의 과체시를 모은 선집으로, 현재까지 영·정조 무렵 제작되었고 편찬자가 權偕(1736~?)이라는 점 이외에 구명

1) 李炳赫, 『韓國科文研究-詩·賦를 中心으로』, 『師大論文集』 13,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1986, 62~63면.

2) 申光洙, 『藝選』 乾(고려대소장본), 『近藝雋選序』. “行詩者, 我國之科體也. 國初, 卞春亭棚場屋各體詩, 亦有入題鋪頭回題等法, 爲取士之程式, 四百年爲舉業者, 不外是塗.”

3) 李肯翊, 『燃藜室記述·別集』 권9, “上始置生進兩試, 漢城府南學分所設場, 以古賦十韻詩, 行初會試.”

4) 柳得恭, 『冷齋集』 권15, 『科弊策』. “謹按國初試士以十韻, 端宗朝易以古詩, 數百年後, 聲律淫哇, 調格詭俚, 有詩以來, 曾未有之.” 李晔光(1563~1628)도 과체시의 형식이 있으며 일반적인 詩와 그 체제가 같지 않다고 하였다. 李晔光, 『芝峯類說』 권8, 『文章部·文體』. “我國科舉之文, 其弊甚矣. 四六冗長, 全似行文, 所謂行文, 又似公事場文字. 詩賦有入題鋪叙回題等式, 尤與文章家體樣全別. 故雖得決科, 遂爲不文之人, 何以致用於世乎? 必大變機軸而後可矣.”

5) 남궁원, 『조선시대 과체시의 문학적 탐구』, 『한문고전연구』 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3, 183면; 이상욱, 『조선 과체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3면.

된 사항이 없다.⁶⁾ 『근예준선』에는 李用休(1708~1782)와 申光洙의 서문이 수록된 필사본이 현전한다. 먼저 신광수는 영·정조 시기에 과체시로 명성을 얻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과체시선집 서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8세기에 문장가로 자임하였던 이 용휴도 이 책에 서문을 남겼다. 이에 『근예준선』은 연구자들의 주목 대상이 되었다. 다만 『근예준선』 자체보다는 이들 서문에 더 주목하였기에, 『근예준선』은 현재까지 조선후기 당대 科文에 대한 인식과 과체시집 편찬 양상에서 소개되었을 뿐이다.⁷⁾ 따라서 『근예준선』의 편찬 의도와 목적은 여전히 구명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용휴와 신광수의 서문을 통해 『근예준선』의 성격, 그리고 撰者인 權偕과 수록된 작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 책의 편찬 시기 및 목적 등을 고구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근예준선』은 대략 7종이다.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장서각본, 국중본, 존경각본 이외에도 고려대본, 국립민속박물관본, 1900년대 필사된 개인소장본 등도 전해진다. 이를 통해 『근예준선』은 20세기 초까지 필사되어 전해졌고, 그 가운데 체제가 상이한 점도 확인된다. 따라서 異本 연구를 통해 『근예준선』의 계열도 살피고자 한다. 특히 장서각본 목차에서는 ‘南詩’라 명명한 만큼, 남인계열의 과체시 양상과 과거준비 참고서로써 『근예준선』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에 『泮庠科詩集』, 『詩課』, 『千彙』 등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후기 과체시집의 흐름 속에서 『근예준선』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6)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편찬자를 權偕(1653~1730)이라 하였다. 이 權偕은 다른 인물이다.

7) 이병혁은 신광수의 서문을 소개하였고, 장유승은 이용휴 서문과 관련하여 『근예준선』을 언급하였다. 李炳赫, 앞의 논문, 70~72면; 장유승, 「조선후기 과체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3, 444면. 이상욱은 장서각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본, 그리고 성균관대 존경각본을 언급하면서 『근예준선』의 체재를 간단히 소개하였다. 또한, 신광수의 서문을 통해 『근예준선』의 최초 편집과 필사가 1751년 177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다. 이상욱, 앞의 논문, 28~29면 참조.

2. 『近藝雋選』의 편찬 시기와 목적

조선후기의 과체시집은 다양한 체제와 양상을 보인다. 이들을 구분하자면 개인적 목적과 집단적 목적의 저술로 나누어지며, 이와 함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試券을 모은 것, 登第하지 못한 작품이지만 습작이나 문예적 취향을 목적으로 창작한 시를 모은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예준선』의 편찬 시기 및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그 단서는 신헌수의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前略) 우리나라의 시가 중국에 미치지 못한 것은 風氣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科體詩에 얽매인 이유도 있다. 하지만 과체시의 체제를 논한다면 묘한 것이 있다. 음절은 정제하고 의미는 새롭고 정교하며 묘사의 교묘함과 체제의 뛰어난이 어찌 쉽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聖直 權僞이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辛未年(1751)년 이후부터 課試로 이름난 자 중에서 30여명을 선발하였고 1명당 5수씩 뽑아서 150수를 모았다. 시에 명성은 있지만, 여기에 실리지 못한 자들은 이 책의 續補가 나오길 기다릴 것이다. 한 번 책을 열어보니 황실도서관에 들어간 듯, 페르시아 도시에 들어간 것 같아 사람의 눈을 현혹하여 어쩔 줄 모르게 하니 얼마나 성대한가? 이른바 사람들이 좋은 수레[上乘]를 타고 집집마다 보물[連城]을 소유한 것이리라! 그런데 揚子雲은 詞賦를 천시해 잔다란 기교라 여겨서 壯夫가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과체시는 지었겠는가? 교묘하더라도 진사만 되고 나면 과체시는 통발과 올라가미 같은 수단일 뿐, 인쇄하지 않는데 어찌 제군들이 여기에 마음을 쓰는가? 나 또한 科場에서 노닌 지 30년 만에 세상에서 과체시로 이름난 자라 칭송했으나, 중년이 되어서는 깨끗이 세속에서 벗어나서 옛사람의 시를 배우고자 하였다. 그런데 淫聲과 美色처럼 중독되어 습성과 고질병으로 굳어져서 끝내는 『시경』의 도를 얻지 못했다. 그러므로 명성이 더할수록 부끄러움만 더해지니 『주역』에서 말한 큰 부끄러움과 작은 부끄러움이 이것이다. 제군들 재주에 그 나이와 그 힘으로 크게 분발하여 과거

공부하는 힘을 옮겨 이른바 옛사람의 시를 구한다면 성대하게 한 시대에 나라를 올리고 大雅를 진동하게 하는 자가 이 중에 나올 것을 안다. 그러나 분잡스럽게 음탕한 풍속의 길에만 힘써 무리를 지어 달릴 필요가 있겠는가? 王世貞은 고려 시인은 어떤 詩法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錢謙益은 고려 시인들과 수창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군은 고려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바라건대 聖直은 나의 말을 전하라. 石北이 쓰다.⁸⁾

위 인용문을 보면 『근예준선』의 편찬자와 그 경위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편찬자는 이 글에서 “權君聖直”이라 하였는데, 權聖直은 權偕(1736~?)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陸萬中(1727~1810)과 李森煥(1729~1814)의 문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⁹⁾ 현재 전해지는 『근예준선』 중 고려본, 장서각본에는 그의 이름·생년·자·본관뿐만 아니라 생·진사 입격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다.¹⁰⁾

8) 申光洙, 『藝選』 乾(고려대소장본), 『近藝雋選序』, “(前略) 我國之詩, 不及中國者, 不惟風氣所局, 亦由科體之爲累已. 然自其體而論之, 有妙者, 音節鏗鏘, 意味新巧, 模寫之工, 裁製之能, 亦豈易言哉! 權君聖直, 哀其儕友中, 自辛未以後, 有名課試者三十餘人, 人各五首, 合一百五十五首, 能聲而不與者, 待得僞續補. 一開卷, 如登羣玉之府, 入波斯之市, 使人眩不暇應接, 何其盛也? 豈所謂人驅上乘, 家握連城者耶! 然子雲薄詞賦, 爲彫蟲小技, 壯夫不爲, 況科體乎? 雖工如得進士則筌蹄耳, 不足以災木, 何諸君之枉用心也? 不佞亦游場屋三十年, 世所稱能詩者, 中歲瞿然欲自拔於流俗, 治古人之詩, 然如淫聲美色, 中毒深結習痼, 卒無得於風雅之道, 故名益盛而愧益甚, 遇過之所云大慚小慚是也. 以諸君之才, 乘其年力, 鼓而自奮, 移夫攻舉業者, 求所謂古人之詩, 則吾知蔚然一代鳴國家而振大雅者, 其將在斯, 顧弊弊然羣驚於淫俗之途乎? 王世貞曰, 高麗人詩, 吾未知其何法. 錢謙益曰, 勿與高麗人唱和, 諸君高麗人也, 不耻諸. 願聖直, 以吾言告之. 石北書.” 이 글은 『石北集』(편찬년도-1906)을 비롯된 『近藝雋選』의 장서각본(1783년 이후), 개인소장본(1904)에도 전한다. 각각의 글자 출입이 상이하지만, 작품 전체 주지는 상통한다. 이들 중에서 『석북집』과 장서각본의 서문은 소개되었지만, 고려대본은 현재까지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아울러 고려대본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필사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서문은 현존하는 작품 중 가장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대본 서문을 제시한다.

9) 陸萬中, 『餘窩集』 권10, 『權體泉聖直【偕】兩世迴婚, 上距其先大夫設筵時, 恰二十四歲, 月日又與同符, 奇事也. 病未赴會, 長句奉賀.』 李森煥, 『少眉山房藏』 권1, 『權聖直【偕】宅次諸公唱酬韻.』

『근예준선』의 편찬과정은 權備이 친구들을 함께 辛未年(1751)년 이후부터 課試로 이름난 자 중에서 30여명을 선발하였고 1명당 5수씩 뽑아서 150수 정도로 책을 구성하였다는 서술이 보인다. 이러한 기록에 의해 『근예준선』은 권성의 주도로 제작되었고, 최초편집이나 필사는 1751년 이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문을 쓴 작가들의 몰년을 고려하면 이용휴는 1782년, 신광수는 1775년이므로, 적어도 1775년 이전에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광수는 1750년에 진사에 급제하였고, 1757년 이후에는 대과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산에 칩거하였다. 1761년에는 음식으로 寧陵參奉을 제수받고, 陸萬中·丁範祖와 함께 詩會를 열어 『驪江錄』을 엮었다.¹¹⁾ 즉 서문에서 “中歲瞿然欲自拔於流俗，治古人之詩”의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서문은 대과를 포기하고 시회를 자주 열었던 1761년 무렵에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면 『근예준선』은 1761년 이후 편찬되었을 것이다. 또한 편찬자인 권성의 입격정보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乙酉式年司馬榜目』에 의하면 권성은 영조 41년인 1765년 식년시에 진사 34위로 入格하였다. 이 같은 정보는 고려대본과 일치하고, 장서각본에는 1771년으로 되어있어 차이를 보인다.¹²⁾ 방목을 기준으로 하면 권성은 1765년 진사에 입격하였는데, 신광수 서문에서 ‘以諸君之才，乘其年力，鼓而自奮，移夫攻學業者.’라는 구절로 보면 권성은 아직 입격하기 전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편찬연도를 1765년 이전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雖工如得進士則筌蹄耳，不足以災木，何諸君之枉用心也?’에서 보듯이 진사 입격 이후로도 볼 수 있기에 서문의 이 같은 서술로 편찬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10) 이 기록에서도 聖直은 그의 자이며, 아버지는 仲範 權師彦(1710~?)이라 기록되어 있다. 권사언과 서문의 작성자인 신광수는 절친한 벗이다. 신광수의 『석복집』에 권사언과 관련된 시만 12편 보인다.

11) 심경호, 「18세기 중·말엽 南人 문단」, 『국문학연구』 1, 국문학회, 1997, 60면.

12) 고려본과 장서각본의 작가 및 入格 정보는 다음 장인 <표 2>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그런데 『근예준선』의 편찬 시기를 보다 좁힐 수 있는 단서가 입격정보에서 확인된다. 6번째 작가로 수록된 申孟權은 申禹相의 初名이다. 영·조대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대본과 장서각본에는 신맹권으로 기록되어 있고, 1904년 필사된 개인소장본⑥에는 신우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인물은 방목에 의하면 신맹권으로는 英祖 35년(1759) 己卯 式年試에 합격하였고, 신우상으로는 英祖 47년(1771) 辛卯 式年試에 합격하였다. 이를 통해 ‘맹권’이라는 이름은 1771년 이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를 고려한다면, 최초 『근예준선』의 편찬년도는 1771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여러 추론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근예준선』의 편찬 시기가 1751년~1771년 사이라는 점만 단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근예준선』의 편찬목적과 의도이다. 목적과 의도는 서문에 명시된 부분이 없다. 『근예준선』은 과채시 선집인 만큼 과거시험 준비 목적으로 편찬된 책이라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편찬자와 서문의 작성자 및 선정된 작가들이 모두 남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 의식이 반영된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전술하였던 선정된 작가들이 남인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작가들의 생년이 주목된다. 모두 권성과 비슷한 연배로 1751년 기준으로 하면 『근예준선』에 수록된 인물은 모두 입격하지 못한 자들이다. 따라서 『근예준선』의 선별기준은 近畿南人 이외에도 1751년 기준으로 未入格者, 그리고 이용휴와 신광수 다음 세대인데 생년이 주로 1720~1740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별기준에 의해 『근예준선』에는 남인 문단의 핵심이었던 인물들이 배제되었다. 대표적으로 채제공은 1743년 문과에 합격하였고, 목만중은 1747년 생원시에 입격하였기에 『근예준선』에 작가로 선별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근예준선』은 선배가 아닌 동료들에 의해 선정된 이용휴와 신광수 이후 남인계 유력 주자들의 과시체선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근예준선』의 편찬시기인 1750~1770년대는 남인들이 정치적으로

약진하면서 본격적으로 官界에 진출하던 때이다. 숙종과 경종 연간 여러 환국을 거치면서 남인은 정권에서 배제되었고, 淸南·濁南으로 분파하면서 당파로서의 위치가 약화되었다. 그 결과 남인계열의 문장가들도 중앙 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蔡濟恭(1720~1799)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파 명맥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詩會를 열면서 남인의 구심점이 되었다.¹³⁾ 이후 그가 1770년 병조판서에 제수되면서 정치적으로 약진하였고, 다른 남인 문인들도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목만중의 경우, 이 시기 채제공의 부재시 남인들을 결속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1769년 庇仁 현감을 버리고 한양 서쪽 芹洞에 기거하며 신헌수, 이용휴와 교류하였다. 이때 주로 시사 활동을 통해 교유와 창작에 몰두하였다. 『근예준선』에서도 선정된 韓光傳, 蔡弘履와 같은 인물들과 삼청동에 모여 結社, 溪社, 蔓社와 같은 시회를 가졌다.¹⁴⁾

이를 통해 본다면, 『근예준선』이 편찬된 시기는 남인들이 정치적 입지와 내부의 결속을 다지던 기간이다. 표면적으로 이 시기 남인 문사들은 詩社를 결성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현실을 비판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남인 세력을 규합하고, 문예적으로 후배 세대를 양성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따라서 『근예준선』은 남인의 정치적 도약기에 편찬된 과체시선집으로서, 당대 남인계열 동료들의 평가가 내재된 결과물이라 하겠다.

13) 이러한 상황에서 終南社와 같은 시회를 열어 남인 세력을 규합하고 후배 세대를 양성하였다.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文字政治」,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362~365면 참조.

14) 백승호, 「18세기 南人 文壇의 詩會-蔡濟恭·睦萬中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4, 384~388면; 박희인, 「餘窩 睦萬中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4~16면 참조.

3. 『近藝雋選』의 체제 및 분류

신광수의 서문에 의하면 『근예준선』에는 30여명의 작가를 선별하고, 그 작가마다 5편씩 작품을 선정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선별된 작가의 수는 현재 까지 전하는 필사본에 의하면 31명~38명으로, 단일하지 않다. 이와 함께 목차 및 목차구성 방식 등에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에 이 장에서는 현전하는 필사본을 비교·대조하여 그 원형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조사된 『근예준선』은 모두 필사본으로 다음과 같이 총 7종이다.

- ①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32人, 청구기호 : 만송 D5 A33](고려대본)
- ②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31人, 청구기호 : D2F-121](장서각본)
- ③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38人, 청구기호 : BA3643-408](국중본)
- ④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7人, 청구기호 : D2F-13](존경각본)
- 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본[미상, 유물번호 : 035553]
- ⑥ 개인소장본[32人]
- ⑦ 개인소장본[32人]¹⁵⁾

현재 전해지는 『근예준선』은 모두 필사본으로 소장처는 고려대, 장서각, 존경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개인소장 2곳이다. 이들의 서지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5) ⑤ 국립민속박물관본은 수장고 이전 문제로 2021년 4월까지 열람 불가하여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⑥·⑦개인소장본 2종은 직접 확인이 불가하여 코베이옥션(kobay.co.kr)에 공개된 이미지를 통해 책의 표지와 목차를 통해 선별된 작가 및 체제를 파악하였다.

〈표 1〉 근예준선 서지사항 비교

	고려대본	장서각본	국중본	개인소장⑥	개인소장⑦
표제	藝選	近藝雋選	近藝雋選	近藝雋選	近藝雋選
간행연도	미상	미상	1942	1904	미상
크기	1冊 : 有界, 3段, 14行21字, 無魚尾 ; 23.9×17.2cm	1冊, 16.4 ×19.1cm	1冊(99張) : 無界, 3段 7行21字 註雙行, 無魚尾 ; 21.0×15.7cm	14×21.3cm	16.7×26.8cm
장서인	健齋, 啞溪 金秉翰信	尹錫昌印	明崗書屋, 明崗山人, 龍仁候人明崗		
裏書	冊主高村宅, 冊主豐山金氏		明崗書屋 壬午季秋	甲辰菊月望 後四日重修	看竹 南漢酸聲

① 고려대본 : 고려대본은 乾과 坤으로 구성되어 있고 坤은 현재 전해지 지 않는다. 乾에는 16번째 작가인 金敍九의 시까지 총 80편이 수록되어 있다. 차례에는 이용휴와 신광수의 서문이 실려 있고 李漢慶부터 陸黃中까지 32명의 성명·자·생년간지·본관·입격정보, 그리고 世系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世系 정보는 고려대본에만 보이는 특징인데, 『근예준선』에 수록된 작가의 世系는 과시체에 능한 선대 문인들을 나열하였다.¹⁶⁾ 입격정보는 첫 번째 작가인 李漢慶을 제외한 나머지 작가들은 최종정보가 생원·진사인 소과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입격정보는 1774년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고려대본은 1774년 무렵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지 안쪽에 冊主를 기록해 놓았는데, ‘冊主豐山金氏’는 이 자료가 晚松 金完燮(1898~1975) 집안의 소장본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¹⁷⁾ 또한 장서인은

16) 『근예준선』(고려대본)에全州李氏 문중의 문인은 李輯부터 李漢慶(표<2> 연번1)까지, 驪興李氏 문중은 李繼孫(1423~1484)부터 李家煥(연번30)까지, 高靈申氏 문중은 申仲舟-申渙-申希潤-申泊부터 申光河(연번3)·申史源(연번 14)·申應淵(연번 25)까지, 安東權氏 문중은 權振(1663~1706)부터 『근예준선』의 편자인 權偕과 權灝(연번4)까지, 淸州韓氏 문중은 韓惠(1403~1431)부터 韓德厚(연번18)까지, 豐山洪氏 문중은 洪履祥(1549~1615)부터 洪和輔(연번9, 이하 문중 생략) 등 문인의 명단이 실려 있다.

17) 고려대 만송문고 자료 기증자 金在澈과 그의 선친 만송 김완섭은 안동 풍산 김씨 문중

8면 첫 작품이 시작되는 면에 ‘健齋’, ‘啞溪’, ‘金秉翰信’이 확인된다.¹⁸⁾

② 장서각본 : 이 필사본에는 31명의 과체시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차례의 ‘南詩列目凡三十一人’에서 보듯이 ‘南詩’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고려대본과 동일하게 서문이 있고, 수록된 작가들의 성명·자·생년간지·본관·입격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1783년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기에 이 무렵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전하는 필사본 중에서 수록된 작가의 순서 및 체제가 이 필사본만 다르다. 아울러 『근예준선』이 끝나고 申光河·吳泰曾·嚴耆·趙存榮·柳得鏞·丁若鏞·李文哲의 排律과 賦가 수록되어 있고 이들의 등수가 표기되어 있다.

③ 국중본 : 이 필사본에는 38명의 과체시가 수록되어 있다. 차례는 고려대본과 장서각본과 다르게 작가가 아닌 작품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의 32인에 이어 金致默이나 裴益紹와 같은 1800년대 작자들이 추가되어 있으며, 이용휴와 신광수의 서문이 없다. 이 필사본에는 明崗書屋, 明崗山人, 龍仁候人明崗의 장서인이 차례로 찍혀 있으며, 표지의 ‘壬午季秋’라는 기록을 통해 1942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타 : ④ 존경각본인 『近選』은 축약본이다. 작가는 李漢慶(5)·李宇溟(2)·申光河(5)·權繼(4)·蔡得淳(3)·申孟權(4)·崔煒(2)의 순서대로, 총 25수가 수록되어 있다. 서문은 없으며 목차는 국중본처럼 작가가 아닌 작품명으로 서술하였다. ⑤ 국립민속박물관은 현재 공개된 이미지에 한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 필사본은 겉표지 포함 총 40장이고 표제는 ‘雋選’이다. 앞표지에 ‘壬戌之秋’ 책 마지막 부분에 ‘壬戌之秋, 堇堇寫出, 勿爲毀傷, 可也. 楊州松山內洞竹里居, 任正言宅.’라고 세로로 묵서되어 있는데, 이

의 인물이다.

18) 김병환은 고종 때 인물이다. 1891년 ‘辛卯九月, 館學儒生應製入格幼學’에서 이름이 확인되며 1903년에는 中樞院議官을 역임하였다. 인장은 <사진 1>과 <사진 2>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를 통해 1802~1922년 사이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용휴와 신팡수의 서문이 수록되어있다. ⑥은 끝에 ‘甲辰菊月望後四日重修’라는 기록을 통해 1904년 9월 19일에 표지를 교체했음을 알 수 있다. 서문과 차례는 모두 고려대본과 동일하다. 다만, 수록된 작가 중 6번째 申孟權이 申禹相으로, 31번째 申命權이 申奭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본에는 모두 개명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 다른 필사본보다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명·자·생년간지·본관은 기록되어 있으나, 입격정보는 없다. ⑦은 차례 및 이용휴와 신팡수의 서문을 비교했을 때 고려대본과 동일하다.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서문 앞에 시 제목으로 나열된 목차가 또 있다는 점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차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목차 및 入格 사항 비교¹⁹⁾

연번	고려대본	장서각본	국중본	개인 소장 ⑥ ⑦	방목정보 및 입격정보 비교
	序文	○	○	×	○
1	李漢慶 (1729~1772)	李漢慶	李漢慶	李漢慶	[문과] 英祖 42년(1766) 丙戌 庭試 [진사] 英祖 35년(1759) 己卯 式年試 고 : 辛未(1751)陸解合制壯元, 乙亥(1755)都會壯元, 戊寅(1758)陸壯元, 同年監試初壯元.
2	李宇溟 (1728~?)	李宇溟	李宇溟	李宇溟	[생원] 英祖 29년(1753) 癸酉 式年試
3	申光河 (1729~1796)	申光河	申光河	申光河	[문과] 正祖 16년(1792) 壬子 式年試(미기입) [진사] 英祖 32년(1756) 丙子 式年試
4	權灝 (1729~1801)	權灝	權灝	權灝	[문과] 英祖 41년(1765) 乙酉 式年試(미기입) [진사] 英祖 32년(1756) 丙子 式年試
5	蔡得淳 (1717~1775)	蔡得淳	蔡得淳	蔡得淳	[진사] 英祖 47년(1771) 辛卯 式年試
6	申孟權(初名) (1730~?)	申孟權	申孟權	⑥申禹相 ⑦申孟權	[진사] 英祖 35년(1759) 己卯 式年試 [문과] 英祖 47년(1771) 辛卯 式年試(미기입)

19) 국중본 차례는 작품으로 되어있으나, 이 표에서는 다른 사본과의 비교를 위해 작가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작가 순서로 보면 장서각본 이외의 다른 사본과 일치한다. 다만, 한 작가 내에 작품 순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	崔煒 (1724~?)	崔煒	崔煒	崔煒	고 : 乙亥(1755)陞壯, 辛巳(1761)庠壯 장 : 辛卯(1771)庠壯
8	李森煥 (1729~1813)	李森煥	李森煥	李森煥	乙亥(1755)庠壯
9	洪和輔 (1726~1791)	尹弼秉	洪和輔	洪和輔	戊午(1738)武科
10	韓光億 (1729~?)	洪和輔	韓光億	韓光億	[진사] 英祖 38년(1762) 壬午 式年試
11	崔恒 (1732~?)	崔恒	崔恒	崔恒	[진사] 英祖 35년(1759) 己卯 式年試 [문과] 英祖 49년(1773) 癸巳 增廣試(미기입)
12	權偕 (1736~?)	權偕	權偕	權偕	[진사] 英祖 41년(1765) 乙酉 式年試 장 : 辛卯(1771) 進士 -오류
13	李日運 (1736~1805)	韓光傳	李日運	李日運	[생원] 英祖 38년(1762) 壬午 式年試 [문과] 正祖 4년(1780) 庚子 式年試(미기입) 장 : 壬午進士-오류
14	申史源 (1732~?)	韓德厚	申史源	申史源	고 : 丁丑(1757)陞壯 장 : 미기입
15	蔡弘履 (1737~1806)	韓光億	蔡弘履	蔡弘履	[진사] 英祖 38년(1762) 壬午 式年試 [문과] 英祖 42년(1766) 丙戌 庭試4
16	金敘九 (1725~?)	金宗厚	金敘九	金敘九	戊寅(1758)陞庠, 辛巳(1761)庭試
17	金宗厚 (1728~?)	申史源	金宗厚	金宗厚	고 : 甲午(1774)進 장 : 미기입
18	韓德厚 (1735~?)	柳光鎭	韓德厚	韓德厚	[진사] 英祖 38년(1762) 壬午 式年試 [문과] 英祖 43년(1767) 丁亥 庭試 장 : 丁亥 三日製(오류)
19	李煊 (1721~?)	柳詢	李煊	李煊	[진사] 正祖 1년(1777) 丁酉 增廣試(미기입) 己卯(1759)庠壯
20	柳詢 (1737~?)	李家煥	柳詢	柳詢	[진사] 英祖 41년(1765) 乙酉 式年試
21	柳光鎭 (1729~?)	蔡弘履	柳光鎭	柳光鎭	[진사] 英祖 39년(1763) 癸未 增廣試(미기입) 고, 장 : 壬午(1762)進(오류)
22	崔燾 (1734~?)	洪鵬漢	崔燾	崔燾	고 : 辛巳(1761)陞壯, 乙未(1775)進 장 : 辛巳(1761)陞壯
23	尹弼秉 (1730~1810)	崔燾	尹弼秉	尹弼秉	[생원] 英祖 41년(1765) 乙酉 式年試 [문과] 英祖 43년(1767) 丁亥 庭試 장 : 丁亥 三日製(오류)

24	洪履健 (1745~?)	申命權	洪履健	洪履健	[생원] 英祖 39년(1763) 癸未 增廣試 [문과] 英祖 47년(1771) 辛卯 式年試(미기일) 고 : 丁亥(1767)第(오류), 장 : 戊子(1768)七夕製(오류)
25	申應淵 (1735~?)	李燦	申應淵	申應淵	[문과] 英祖 47년(1771) 辛卯 式年試(미기일) 고 : 壬午(1762)庠解 장 : 壬午會製, 己丑(1769)菊製
26	韓光傳 (1723~?)	洪履健	韓光傳	李燦	고 : 癸未(1763)進壯, 庚寅(1770)入仕 장 : 癸未進士
27	李燦 (1741~?)	李日運	李燦	韓光傳	[생원] 英祖 50년(1774) 甲午 增廣試(미기일) 고 : 癸未(1763)庠壯, 同年陞解 장 : 癸未陞
28	沈達 (1742~?)	沈達	沈達	沈達	고 : 癸未(1763)庠壯, 同年陞解, 丁亥(1767) 入仕 장 : 癸卯(1783)陞壯
29	洪鵬漢 (1737~?)	李煊	洪鵬漢	洪鵬漢	[진사] 英祖 41년(1765) 乙酉 式年試
30	李家煥 (1742~1801)	金敘九	李家煥	李家煥	[진사] 英祖 47년(1771) 辛卯 式年試 [문과] 正祖 1년(1777) 丁酉 增廣試(미기일)
31	申命權(初名) (1738~?)	申應淵	申命權	⑥申奭相 ⑦申命權	[진사] 正祖 10년(1786) 丙午 式年試(미기일) 甲申(1764)陞壯, 合制長
32	睦黃中 (1734~1799)		睦黃中	睦黃中	[생원] 英祖 50년(1774) 甲午 式年試(미기일) 乙酉(1765)陞壯
33			曹明國		
34			金致默		
35			裴益紹		
36			鄭璞		
37			申玔		
38			李舜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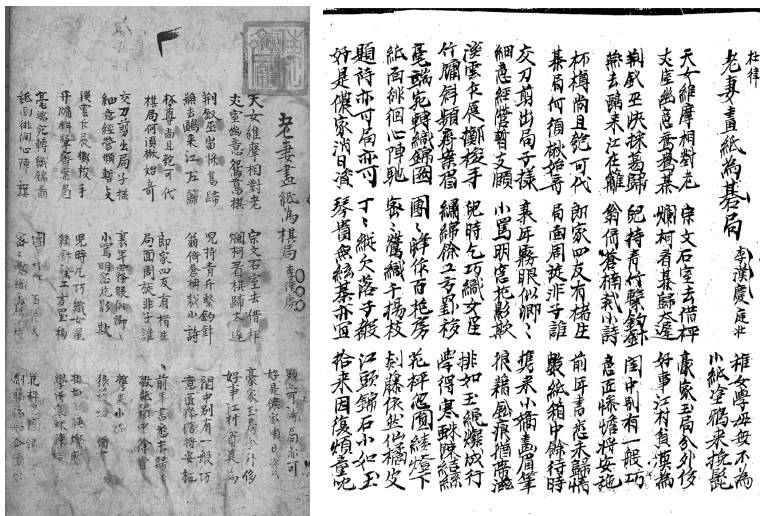
이상 7개 필사본을 서문의 유무와 차례에 따라 정리하면 고려대본 계열, 장서각본 계열, 국중본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근예준선』 원본의 성립은 1771년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고려대본은 1774년 이후 필사되었기에, 현전하는 필사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사본이다. 또한 서문·世系·입격정보 등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아울러 개인소장본⑥과 개인소장본⑦의 차례가 고려대본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사본계열이 많이 필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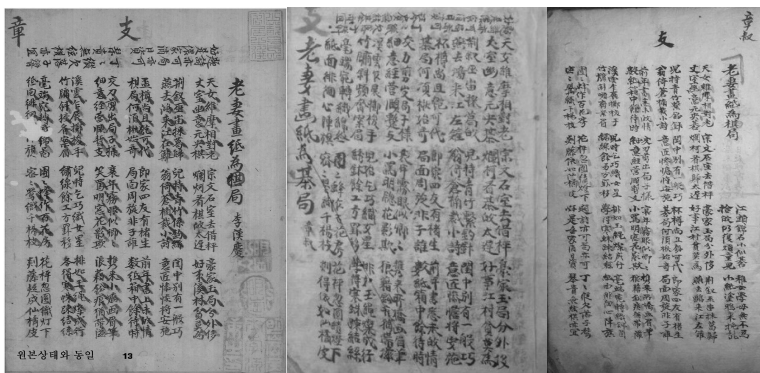
장서각본의 경우 1783년 정보까지 수록되어 있어 고려대본보다 후대에 필사된 것이다. 현전하는 사본 중에서 수록된 작가들 차례가 다른 사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무엇보다 수록된 작가 중에서 陸黃中이 빠져 31명인 점이 주목된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 차례를 변동하였는지 그 의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편찬자의 주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²⁰⁾

국중본의 차례는 작가가 아닌 작품 제목으로 나열되었으나, 몇 작품을 제외하면 차례는 고려대본과 대체로 비슷하다. 여타 필사본과 다르게 편찬 시기가 1942년이라 명시되어 있어 가장 후대에 편찬된 필사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800년대 남인계열 작가들도 추가되어 모두 38명이라는 점이 여타 필사본과 다른 점이다. 이들의 계열은 어디까지나 차례나 목차에 의한 구분인데, 작품을 수록하는 양상에 따르면 그 계열은 더욱 세분화된다.

20) 1780년 채제공은 徐命善 정권에 의해 축출당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겪었는데, 이때 陸萬中·姜浚欽·李基慶·洪秀輔 등이 함께 채제공을 공격하면서 남인계열은 蔡黨과 洪黨으로 갈라지게 된다. (최우혁, 「정조~순조대 近畿南人の 분화와 정치 명분 확립」, 『조선시대사학보』 90, 조선시대학회, 2019, 278~279면 참조.) 장서각본은 1783년 무렵 필사되었기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채당 입장의 편찬자가 목만중의 동생인 陸黃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진 1〉 왼쪽: 고려대본, 오른쪽: 장서각본



〈사진 2〉 왼쪽: 국중본, 가운데: 개인소장⑥, 오른쪽: 개인소장⑦

위 사진에서 보듯이, 『근예준선』에는 한 면당 한 편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개인소장⑥·⑦은 작가 이름이 아닌 字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필사본에는 가장 우측 행에 큰 글씨로 작품 제목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작가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이 책의 체제가 작가 1명당 5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방식이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작가의 첫 작품 밑에 해당 성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장서각본을 제외한 나머지 사본의 지면 상단에 ‘支’라는 韻目이 표기되어 있다.²¹⁾

수록된 작품은 18句, 19句, 20句이고, 간혹 22句에서 27句까지 장편시 분량에 해당할 만큼 그 양상이 단일하지 않다. 사진에서 보듯이 같은 작품임에도 詩句가 동일하지 않다.²²⁾ 그럼에도 개인 소장⑦의 4단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필사본의 기록 방식은 모두 3단이다. 다만, 고려대본은 7열, 장서각본은 8열, 국중본은 6열, 개인소장⑥·⑦은 6열로 단일하지 않다. 아울러 고려대본·국중본·개인소장⑥의 경우 3단을 유지하면서 작품을 다 기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면 상단에 시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면, 고려대본 계열에 속했던 개인소장⑥·⑦은 詩句, 작품기술, 작품제목 및 작가를 기술하는 방식에서는 상이하다. 그럼에도 한 면당 한 편의 작품을 수록하는 방식은 동일하며, 이러한 점은 조선후기 여러 과체시선집에 확인된다.

지금까지 현전한 필사본을 비교·대조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항은 현전하는 모든 필사본은 원본이 아니다. 신광수의 서문에 의하면 1751년 기준으로 작가를 선별하였는데, 이들의 방목정보를 보면 『근예준선』에 수록된 작품 대부분은 입격하기 전이다. 이에 입격정보가 기록된

21) 『근예준선』에서는 東(上平)·支(上平)·霰(去聲)·紙(上聲)·寘(去聲)·禡(去聲)·霽(去聲)·琰(上聲) 등 운목이 표기되어 있는데, 유독 입성만 암운으로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정조의 언급과 동일한 양상으로 운자를 통해 당대 韻書의 활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지면을 달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弘齋全書』 권165, 『日得錄』5. “唐制以詩取士, 以其八股排律, 故專押平聲, 而今之科詩, 非排非古, 自是一體, 平上去三聲, 通同通用, 而獨不押入聲, 是果何所據也?”

22) 『詩課』는 18句, 고려대본은 19句, 국중본·개인소장⑥은 20句, 장서각본·개인소장⑦·존경각본은 22句가 수록되었다. 아울러 각 사본마다 글자의 출입도 있으나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필사본은 원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원본에다 추가로 입격정보를 기록할 수 있지만, 입격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고려대본·장서각본·개인소장 모두, 작품의 필체와 입격정보의 필체가 동일하기에 원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험정보가 부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장에서 작성된 시가 아니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수록된 인물들의 입격정보와 『泮庠科詩集』이나 『詩課』와 같은 조선후기 과채시선집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근예준선』에 수록된 다수의 작품은 과장 밖에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반상과시집』은 여러 면에서 『근예준선』과 비교 대상이 된다. 『반상과시집』에 수록된 작가 중에 李漢慶·申光河·蔡得淳·李森煥·洪和輔·申史源·李家煥·蔡弘履·李燦·洪履健은 『근예준선』의 작가들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근예준선』과 『반상과시집』의 작품과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데, 『반상과시집』이 1744년부터 사학 유생들을 대상으로 승보시나 합제 등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작품들을 연대순으로 모아 엮은 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근예준선』은 대부분 미입격한 작품이라 하겠다.

다음 비교 대상인 『시과』는 16세기부터 명편을 망라한 과채시집으로, 입격한 작품의 경우 시험정보와 등수를 기록해 두었다. 여기에는 蔡得淳·李燾·韓光億·申史源·李漢慶·蔡弘履·崔烜·李日運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이한경 5작품의 순서는 『시과』와 『근예준선』에서 모두 동일하다.²³⁾ 특히 『老妻畫紙爲碁局』의 경우, 『근예준선』의 장서각본에는 ‘庭壯’이라는 시험정보와 성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전하는 『근예준선』가

23) 이외 이우명·신광하·채득순 등의 순서도 거의 비슷하다. 이 순서는 『근예준선』의 순서와 일치한다. 다만 권엄이 빠져 있다. 존경각본인 『近選』과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李漢慶(5)·李宇溟(1)·申光河(5)·權灝(4)·蔡得淳(3)·申孟權(4)·崔煒(2)이다. 『시과』에서는 이한경(5)·이우명(1)·신광하(3)·채득순(3)이다. 또한 『시과』에서는 『草堂畫荊益圖』가 이우명의 작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근예준선』에는 신광하의 작품으로 표기되어 있다.

운데 작품에 표시된 유일한 시험정보와 성적이다. 이한경은 1766년 2월 29일 庭試에 장원급제하였다. 그런데 이때 試題는 ‘暮年自省益勉二字’로 賦가 출제되었다. 또한 그는 1759년 2월 27일 식년시에 진사로 입격하였는데, 이때 시제는 ‘聞靈芝宮夢兆引白傳蓬萊詩以書其事’이다.²⁴⁾ 따라서 이 시험의 답안지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고려대본에는 이한경의 ‘辛未(1751)陞解合制壯元, 乙亥(1755)都會壯元, 戊寅(1758)陞壯元, 同年監試初壯元.’과 같은 4개의 시험정보와 성적이 기록되어 있다. 신광수의 서문에서 ‘辛未年(1751)년 이후부터’라는 선별기준과, 이한경의 『노처화지위기국』이 『근예준선』의 첫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처화지위기국』은 1751년 시험 때 답안지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시과』에는 시험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근예준선』과 겹치는 작가와 작품 모두 시험정보와 성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근예준선』에 수록된 작품은 대부분 과장에 등재하지 못한 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근예준선』은 좋은 성적을 얻은 시권보다는 대부분 등재하지 못한 시이므로, 조선후기 과제시 명편선집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입격한 답안지가 아닌 일종의 수험 참고서와 같은 성격이므로, 과제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는 어렵다. 다만 과제시선집이 선발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에 국한되기보다는 편자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과제시선집이 편찬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즉 현전하는 필사본을 통해 『근예준선』은 20세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필사되어온 과제시선집이라 할 수 있다.

24) 『崇禎三己卯式年司馬榜目』에 의하면 李漢慶은 一所에서 詩로 합격하였고 시제는 ‘聞靈芝宮夢兆引白傳蓬萊詩以書其事’이다. 방목정보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을 활용하였다.

4. 『近藝雋選』의 형식적 특징

과체시는 엄격한 정형성을 요구하는 형식주의적 문체이기에, 자유로운 創意와는 대척점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체시의 엄격한 형식성은 폐단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앞선 序文에서 신광수는 부정적인 면모와 긍정적인 면모를 병론하였다. 이 중에서 ‘音節鏗鏘, 意味新巧, 模寫之工, 裁製之能’에서 보듯이, 음절·의미·묘사·체재에 주목하여 과체시의 기교적인 면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즉 과체시가 작자의 창의보다는 형식적인 기교에 치우쳐 있지만, 그럼에도 巧·工·能和 같이 세련된 기교를 통해 남의 이목을 이끌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신광수의 요지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이용휴 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체시는 선택받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다. 이에 試官이 선택할 만한 절묘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용휴는 이를 평과 대비되는 용어로 奇라 하였다.²⁵⁾ 즉 이용휴와 신광수는 시의 형식을 공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과체시의 효용성을 인정하였다. 특히 각자의 서문 말미에서 신광수는 ‘風雅之道’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과체시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이용휴는 과체시가 문예를 시험하는 글이기는 하지만, 인위적인 표현 기교를 넘어 시인의 자연스러운 意境을 드러내는 熏鍊으로써 그 가치를 바라보고 있어, 모두 과체시를 시험 목적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근예준선』에 수록된 과체시의 형식과 내용에 주목해야 하므로, 이 장에서는 平仄, 句數, 入題 등의 鋪置形式으로 수록된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사진에 제시된 작품은 李漢慶의 「늪은 아내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

25) 李用休, 『藝選』 乾(고려대소장본), 「近藝雋選序」, “(前略) 且鎖院程藝, 平不勝取, 則不得不取奇勢也. 雖然, 遇不遇賞不賞之念絕, 而寓巧於拙, 斂華而實, 人工泯天境露而後, 詩品定, 詩品定而後, 士品定, 此又不可不知也. 惠寔居士譔.”

리고[老妻畫紙爲碁局]이다. 이 제목은 杜甫의 『江村』의 한 구절로, 장서각본에는 ‘杜律’이라는 출전을 기록해 두었다. 먼저 평측에 대해 살펴보자.

天女維摩相對老, 丈室幽意鴛鴦棋. ○●○○○●●, ●●○●○○○.
 宗文石室去借枰, 爛柯看棋歸太遲. ○○●●●●○, ●○●○○●○.
 豪家玉局兮外侈, 好事江村貧莫爲. ○○●●○○●, ●●○○○●○.
 荊釵巫峽採葛歸, 燕去鷗來江在籬. ○○○●●●○, ●●○○○●○.
 兒持青竹繫釣針, 翁倚蒼楠裁小詩. ○○○●●●○, ○●●○○●○.
 閨中別有一般巧, 意匠慘憺將安施. ○○●●●○●, ●●●●○○○.
 杯樽尙且匏可代, 棋局何須楸始奇. ○○●○○●●, ○●○○○●○.
 卽家四友有楮生, 局面周旋非子誰. ●○○●●○○, ●●○○○●○.
 前年書悉未歸情, 數紙箱中餘待時. ○○○●●○○, ●●○○○○○.
 交刀剪出局子樣, 細意經營願暫支. ○○●●●●●, ●●○○○●○.
 裏年霧眼似卿卿, 小罵明窓花影欺. ●○○●●○○, ●●○○○●○.
 携來小嬌畫眉筆, 狼籍鈿痕猶帶滋. ○○●○○●○, ○●○○○○○.
 溪雲乍展擲梭手, 竹牖斜頻齊案眉. ○○●●●○○, ●●○○○○○.
 兒時乞巧織女星, 繡綿餘工方罹移. ○○●●●○○, ●○○○○○○○.
 排如玉繩燦成行, 學得寒蛛疎結絲. ○●○○○○○, ●●○○○○○.
 毫瑞究轉織錦圖, 紙局徘徊心陣旗. ○●●●●○○, ●●○○○○○.
 團團蜂作百花房, 密密鶯織千楊枝. ○○○●●○○, ●●○○○○○.
 花枰忽圓織燈下, 鄰簾依如仙橘皮. ○○●○○●○, ○○○○○○○.
 題詩亦可局亦可, 好是農家消日資. ○○●●●●●, ●●○○○○○.
 丁丁縱欠落子聲, 琴貴無絃棋亦宜. ○○●○○○○, ○●○○○○○.
 江頭錦石小如玉, 拾來因復煩童兒. ○○●●●○○, ●○○○○○○○.
 稚女學母無不爲, 小紙塗鴉來挽髭. ●●●○○○○, ●●○○○○○.

여러 문헌에 의하면 과체시의 평측은 李白의 『襄陽歌』에 준한다고 하는데, 李奎象의 『並世才彥錄』에서는 “科詩法, 內句上二字, 必平聲, 外句上二字, 必去仄聲, 古調不用此法.”이라 하였고, 呂圭亨은 ‘二平三仄 二仄

三平'이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과체시에는 古詩體, 行詩體, 排律體가 공존한다.²⁶⁾ 이 작품에서 보듯이 이평삼측이나 이측삼평으로 알려진 구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미 단위는 4·3으로 끊어지지만 평측과 운자로 본다면 근체시도 아니며 長篇 古詩에 가깝다. 과체시는 다른 詩體보다 경시되면서 일반적인 형식에 벗어나는 작품이 오히려 문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²⁷⁾ 하지만 『근예준선』의 편찬목적과 수록된 작가들의 면모를 고려해 본다면, 이 작품은 일반 과체시에 비해 평측이 비교적 자유롭기에 글자 선택이 폭넓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초학자들에게 시 창작에서 흥미를 고취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句數와 鋪置 측면에서 살펴보자. 구수와 포치의 일정한 형식은 李睟光의 『芝峯類說』에 의한다면 16세기 중반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²⁸⁾

〈표 3〉 포치 명칭과 내용 비교

	명칭	내용	출처 비교
제1구	첫구	天女維摩相對老, 丈室幽意駕鸞棋.	科舉及科文
제2구	對, 對聯	宗文石室去借枰, 爛柯看棋歸太遲.	科舉及科文, 論詩十首
제3구	立題, 入題, 到本身	豪家玉局兮外侈, 好事江村貧莫爲.	竝世才彥錄, 科文規式
제4구	鋪頭(元題)	荊釵巫峽採葛歸, 燕去鷗來江在籬.	공통
제5구	鋪敍, 對聯	兒持青竹繫釣針, 翁倚蒼楠裁小詩.	科舉及科文, 論詩十首

26) 장유승, 앞의 논문, 426~427면; 이상욱, 앞의 논문, 34~35면 참조.

27) 특히 안동 김씨 가문의 문인들은 과체시의 폐단을 깊이 인식하고 古詩風의 과체시를 창작하였는데, 그들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당대 과체시 선집에도 영향을 끼쳤다. 최두헌, 『천회(千集) 해제』,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28) 李睟光, 『芝峯類說』 권8, 「文章部」, “文體條, 我國科舉之文, 其弊甚矣. 四六冗長, 全似行文, 所爲行文, 又似公事場文字. 詩賦有入題鋪敍回題等式, 尤與文章家體樣全別, 雖得決科, 遂爲不文之人, 何以致用於世乎? 必大變機軸而後可矣.” 이하 포치방식 및 역할은 이병혁(앞의 논문, 62~67면), 이상욱(앞의 논문, 40~54면), 金東錫(『朝鮮時代 科體詩의 程式 考察』,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79~80면)의 연구를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제6구	初項	閨中別有一般巧, 意匠慘憺將安施.	科文規式
제7구	項, 初項	杯樽尙且匏可代, 棋局何須楸始奇.	科舉及科文, 論詩十首
제8구	對, 回題	卽家四友有楮生, 局面周旋非子誰.	科舉及科文, 科文規式
제9구	回下	前年書悉未歸情, 數紙箱中餘待時.	科文規式
제10구	回題, 二項	交刀剪出局子樣, 細意經營願暫支.	科舉及科文, 論詩十首
제11구	回題 對	裏年霧眼似卿卿, 小罵明窓花影欺.	科舉及科文
제12구	結	携來小嬌畫眉筆, 狼籍鉛痕猶帶滋.	論詩十首
제13구 (이하)	回下	溪雲乍展擲梭手, 竹牖斜頻齊案眉. (下略)	科舉及科文, 並世才彥錄

과체시는 18句로 구성하기 때문에 창작할 때 많은 詩句를 채워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러한 포치형식은 장편인 과체시의 전체 구성을 안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실제 과체시의 주된 글쓰기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다만 위 표에서 보듯이, 제4구인 鋪頭를 제외하면 포치방식의 명칭이 단일하지 않다. 이를 통해 실제 시험에서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 엄격한 형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과체시는 내용상 3句를 한 단락으로 삼아 전체 4단락으로 구성한다. 이에 포치형식 또한 4단락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단락에서 1구와 2구는 破題의 역할을 하는데, 주로 제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3구는 入題로, 향후 서술 초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 작품에서는 바둑을 두기 위해 바둑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을 통해 강촌의 궁벽한 삶에 주목하고 있다. 둘째 단락에서 4구인 포두는 제목의 내용을 펼치는 첫 부분이라는 의미로 내용에서 본격적인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또한 題目 중에서 한자를 韻字로 정하고 이를 포두에 가서 그 글자를 운자로 써야 한다. 이에 元題라 부르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해당하는 글자는 ‘籬’이나, 제목에 있는 한자가 아니기에 과체시 형식에서 어긋나 있다.²⁹⁾ 5구는 내용상 포두를 보

29) 이한경의 나머지 4편의 시에서도 元題에서 제목의 글자를 운자로 쓰는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

충하거나 부연하면서 대우로 구성되는데 이 작품에서도 두보의 「강촌」에서 取材하면서 대우로 구성하였다. 6구의 역할은 4·5구의 내용을 다음 구로 이어주는 것인데 이 작품에서는 「閨中」을 통해 아내가 등장하며 「意匠」을 통해 강촌의 풍경과 이후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는 상황을 연계하고 있다.

셋째 단락에서 7구는 初項이라 하여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는데, 바둑판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상의 전개가 확인된다. 8·9구는 이를 대우를 이용하여 앞선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즉 집안에서 바둑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책과 종이뿐임을 표현하고 있다. 넷째 단락인 10·11·12구는 回題로 셋째 단락에서 서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주제가 반영된 부분이다. 이 작품에서는 실제 종이에 영성한 바둑판을 만들어 나아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촌의 한가로움이 아닌 「궁벽함」이라는 주제가 발화되고 있다. 이하 13구부터는 앞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이 작품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이 부분은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시구를 계속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보여주는 곳이다. 즉 강촌의 한가로움이 아닌 바둑판을 종이에 그려야만 하는 궁벽함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자조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처화지위기국」은 평측 및 포치형식과 관련한 운자에서 과체시가 갖는 전형에서 벗어나 있다. 이한경 뿐만 아니라 韓光億·申史源·韓德厚·李濤의 작품에서도 元題에서 제목의 글자를 운자로 쓰는 형식을 지키지 않았으며, 나머지 작가들도 대부분 1~3편의 작품에서만 이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포치형식은 대부분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근예준선』에서의 포치형식의 활용은 엄격한 형식미를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보다는 실제 창작에서 표현과 서술 방식을 체득하기 위한 역할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과체시는 원출전의 내용과 詩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원작자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한다. 「노처화지위기국」에서는 19구에 「儂」과 같은 1인칭

시어를 활용하여 두보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4구의 ‘燕去鷗來江在離’와 5구의 ‘兒持青竹繫釣針’은 원작품의 시어와 시상을 더욱 짙진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원작품의 시상인 閑靜과 自足을 답습하기보다는 변주를 통해 궁핍함에 대한 자조로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또한 고려본·국중본·개인소장⑦에는 批點이 찍혀 있으며, 특히 국중본과 개인소장⑦에서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국중본의 경우 각 구의 홀수 번째 글자에는 푸른색, 짝수 번째 글자에는 붉은색의 비점이 찍혀 있고, 개인소장⑦은 반대로 홀수 글자에 붉은색, 짝수 글자에 푸른색 비점이 찍혀 있다. 비점의 위치도 비슷한데 형식상으로는 주로 對句에 해당하며, 주로 시상의 전개, 확장, 변화가 보이는 구 전체에 비점이 확인된다. 국중본과 개인소장⑦은 1900년대 필사되었기 때문에, 이 필사본의 비점을 통해 18세기 당대인의 과체시에 대한 시각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고려대본의 경우 전체 구절은 아니지만, 비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동일하며,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반에 걸쳐 있는 문인의 과체시를 선집한 『千彙』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예준선』의 작품양상 및 비점을 통해 과체시의 형식미뿐만 아니라, 내용상에서의 당대 과체시 평가 기준을 엿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점들을 『근예준선』의 작품 선별기준 및 편찬목적과 연계한다면, 과거 급제를 위한 과체시 참고서라는 실용적 목적과 함께 남인계열 및 당대인의 과체시에 대한 평가 기준도 엿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5. 나가며

지금까지 현전하는 『근예준선』의 필사본을 비교·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각 필사본의 체재와 원본을 유추해 보았다. 아울러 이를 통해 그 편찬 시기 및 목적도 살펴보았다.

『근예준선』은 18세기 과체시집이 流傳되는 상황에서 편찬된 필사본이다. 수록된 작품들로 보자면, 좋은 성적을 얻은 시권보다는 대부분 등제하지 못한 시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과체시 명편선집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존 과체시선집에서 볼 수 없는 작품들로, 당대 유생들의 과체시 학습 과정 및 과체시에 대한 평가 기준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또한 당대 동료들의 평가가 내재된 결과물이기에, 과체시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문예적 취향을 목적으로 창작한 시를 모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용휴와 신광수의 서문에 의한다면, 『근예준선』은 참고서와 도구서의 성격으로 보인다. 신광수는 이 책을 통해 과거 공부를 넘어 『시경』의 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용휴는 과체시를 시품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닌 선비의 품격[土品]에까지 확대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물론 과체시집이 과거시험의 준비뿐만 아니라 습작이나 문예적 향유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과체시의 세련된 표현이나 수법 등을 통해 『시경』의 도에 나아갈 수 있는 수련서의 하나로 『근예준선』의 가치를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은 실제 작품양상에서 운자 및 포치형식에서 과체시의 엄격한 형식미를 유지하기보다는, 시상의 표현과 서술방식에 더 치중했던 면모와 연계되었다. 물론 영·정조대에도 과체시 형식이 엄격히 유지된 것은 아니지만, 『근예준선』은 과체시의 형식미보다는 詩句를 채워나가야 하는 내용상 측면에서 주목되는 과체시선집이며, 아울러 과체시 학습과정과 과체시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진사시 초기 특성을 갖는 陞補試, 四學合製, 公都會와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초학자를 고려한 선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근예준선』의 편찬자 및 선정 작가들이 모두 남인계 인물이며, 이 책의 편찬시기가 이들의 정치적 도약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자신의 능력 과시와 불우함을 부각시키는 기제로 과체시를 창작하는 것처럼³⁰⁾, 『근예준선』의 제작도 남인세력의 능력 과시이거나 불우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재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현전하는 남인계 과체시집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책을 통해 1780년대 남인이 체제 공과 洪秀輔(1723~?)로 분파하기 이전의 문학적 활동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근예준선』이 남인이라는 집단적 의식하에 제작되었고 남인이 당시 활발하게 정계에 진출하였던 상황을 언급했음에도, 이 글에 서는 선정된 작가들의 정치적 배경 및 활동 등과 긴밀히 연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정 당파와 관련한 당대 科擧문화의 일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하지만, 지면상 추후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30) 심경호, 『『조선문학사』의 한문학 부문 서술에 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113면.

참·고·문·헌

- 『藝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近藝雋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近藝雋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近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
『近藝雋選』, 국립민속박물관 소장본.
『近藝雋選』, 개인소장본.
『近藝雋選』, 개인소장본.
『詩課』,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泮庠科詩集』,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金東錫, 「朝鮮時代 科體詩의 程式 考察」,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남궁원, 「조선시대 과제시의 문학성 탐구」, 『한문고전연구』 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3.
李炳赫, 「韓國科文研究-詩·賦를 中心으로」, 『師大論文集』 13,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1986.
박희인, 「餘窩 陸萬中 漢詩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백승호, 「18세기 南人 文壇의 詩會 - 蔡濟恭·陸萬中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4.
백승호, 「樊巖 蔡濟恭의 文字政治」,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심경호, 「18세기 중·말엽 南人 문단」, 『국문학연구』 1, 국문학회, 1997.
심경호, 「『조선문학사』의 한문학 부문 서술에 관하여」, 『민족문학사연구』 1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2014.
이상욱, 「조선 과제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장유승, 「조선시대 과제시 연구」, 『한국한시연구』 11, 한국한시학회, 2003.
최두현, 「천휘(千穽) 해제」,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최우혁, 『정조~순조대 近畿南人の 분화와 정치 명분 확립』, 『조선시대사학보』 90, 조선
시대학회, 2019.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

이 논문은 科體詩가 성행하던 18세기에 편찬된 『近藝雋選』의 편찬 시기 및 의도와 목적을 究明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최초 『근예준선』은 權侑(1736~?)에 의해 1771년 이전에 편찬되었다. 현전하는 『근예준선』은 대략 7종으로 모두 필사본이며 원본이 아니다. 이 중에서 고려대본은 1774년 이후 필사되었고, 入格에서부터 世系까지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근예준선』에 수록된 작품은 대부분 등재하지 못한 詩이기에, 이 책은 조선후기 科體詩 명편선집에 해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 科體詩선집에서 볼 수 없는 작품들로 당대 유생들의 科體詩 학습 과정 및 科體詩에 대한 평가 기준의 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근예준선』의 편찬자 및 선정 작가들이 모두 南人系 인물이며, 이 책의 편찬 시기가 이들의 정치적 도약기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근예준선』은 남인세력의 능력 과시이거나 불우함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가 내재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전하는 남인계 科體詩집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 책을 통해 1780년대 남인이 분파하기 이전의 문학적 활동을 가늠할 수 있다.

주제어 近藝雋選, 科體詩, 南人, 權侑, 朝鮮後期

Abstract

A Study on GeunYeJunSeon(『近藝雋選』) in the Late Joseon Dynasty

Kim, Kyu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time, intention and the purpose of publishing of GeunYeJunSeon(『近藝雋選』), compiled in the 18th century when poetry for the civil examination prevailed.

The first GeunYeJunSeon(『近藝雋選』) was compiled by GwonSeong(1736~?) before 1771. There are approximately seven types of extant 『GeunYeJunSeon』 and they are all copied works and not originals. Among them, a version of Korea University, which was transcribed after 1774, is valuable in that it contains various information ranging from passing of the examination to the lineage of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civil examination.

Since most of the works in GeunYeJunSeon(『近藝雋選』) were written when applicants were not able to pass the exam, this book does not belong to collections of poetry masterpieces compiled for the civil examination. However, since those works cannot be seen in the previous collection of poetry masterpieces for the civil examination,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glimpse of the learning process and the criteria for evaluation of poetry for the civil examination. In addition, the compiler and selected writers of the GeunYeJunSeon(『近藝雋選』) are all from Namin pedigree, and the time of compiling this book is intertwined with their political success. Considering these points, it can be said that the GeunYeJunSeon(『近藝雋選』) is a result of showing the ability of Namin pedigree or the intention to highlight their underprivileged condition. Moreover, since there is no extant book of poetry for the civil examination of Namin pedigree, this book can be used to estimate their literary activities before an offshoot of Namin took place in the 1780s.

(Key words) GeunYeJunSeon, Poetry for the Civil Examination, Namin, GwonSeong, the Late Joseon Dynasty

논문투고일 : 2021.02.24. 심사완료일 : 2021.03.24. 게재 확정일 : 2021.03.24.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hinese characters &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reload4@korea.ac.kr